

대학등록금 인상 역대 최대...700만원 넘어

4년제 대학 70.5% 인상...2010년 이후 가장 높아
학생 1인 연평균 710만6500원...전년비 4.1% ↑

올해 일반대 및 교육대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상률 4.1%를 기록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평균 등록금은 최초로 700만원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2025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인상했으며 57개교(29.5%)는 동결했다.

2025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

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전년(682만9500원) 대비 27만7000원(4.1%) 상승했다. 평균 등록금은 전체 등록금(학과별·학년별 등록금×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눠서 구한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800만2400원, 국·공립은 423만8900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805만1700원, 비수도권은 649만25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1016만9700원), 예체능(814만4000원), 공학(754만4000원), 자연과학(713만8600원), 인문사회(627만2600원) 순

이다. 전문대학 129개교 2025학년도 등록금은 129개교 중 94개교(72.9%)가 인상했다. 34개교(27.1%)는 동결, 1개교(0.8%)는 인하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3개년의 물가상승률들이 3.66%로 높아지면서 등록금 인상의 법정상한은 5.49%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더 큰 탓에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기조를 17년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비춰진다.

각 대학별로 학생 지원대책을 마련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전망이다. 2025년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2024년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액(191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교내장학금 1410억과 학생복지 560억원 등 학생에게 직접지원을 통해 총 198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5846억원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했으며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지속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광산구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선정

'광산뮤직ON페스티벌' 시민 중심 축제 자리매김



광산구가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시민 중심 축제를 구현한 혁신 역량으로, '제17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에서 축제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공동후원해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서 광산구는 민선 8기에 기획한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1회부터 7만여 명을 모은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지난해

2회도 7만 명 이상 방문객을 기록하며 재미있고 심심한 도시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으로 개선하는 광주 대표 축제로 부상했다.

광산구는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륙습지와 인접한 황룡천수공원을 축제 장소로 활용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풍형 음악축제를 선보였다.

'피크닉존(소풍 공간)', 물멍빛멍존, 돛타리존, 무대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스텔딩존 등 다채로운 행사장 구성, 다양한 체험형 행사 등을 운영해 시민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황룡천수공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골목상권과 연계한 상생 시도로 축제 열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시민추진단, 설문조사 등으로 축제 기획, 운영, 관람 등 전반에 걸쳐 시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광산민의 축제 모형을 정립했다.

올해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9월 20일부터 21까지 황룡천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북구, 전남대 상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재난안전관리사업 선정...특교세 1억5천만원 확보

북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재난안전관리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최종 선정되어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돌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7월 법제화된 제도이다.

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고 일반도로와 차별화를 위한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안내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 및 행동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북구는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 1억5000만 원에 구비 5000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설죽로 202번길)에 약 470m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고시, 주민설명회, 사업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조성 이후에도 연차별 점검 및 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기 기자

서구, 반부패 청렴 정책 본격 추진

소통·신뢰 바탕 갑질·부조리 없는 공직문화 조성

서구는 29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청렴 실천 소통회의에서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은 ▲반부패·청렴 정책 인프라 구축 ▲구민 중심 청렴 서구 구현 ▲공감과 소통 기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 의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서구는 지속 가능한 내부 청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리더단'과 '청렴지킴이'의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 등 반부

패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공사,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매월 모니터링하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의 직통 소통 창구인 '바로문자하랑게' 등을 통한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장 내 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내부 청렴 캠페인을 전개해 직원 상호 간 신뢰도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순천 현대·미즈여성아동병원 '모자의료 협력 시범사업' 선정

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30일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이 협력체계 구축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대표기관(의상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조선대학교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중증치료가관으로, 미즈여성아동병원을 포함한 10개소가 지역 분만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순천=조순익 기자

그동안 조산아·미숙아 출생 시

영광 낙월도에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

우수 여왕벌 보급으로 꿀벌산업 보호 기대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꿀벌 실종 사태 등의 위기에서 꿀벌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8일 영광 낙월도에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영광군수와 정용채 한국양봉협회 전남도지회장, 박주호 한국한봉협회 전남지회장, 방혜선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꿀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국비와 도비 24억원이 투입된 꿀벌 증식장은 전남환경에 적합한 꿀벌자원의 증식과 보급을 위한 연구시설로, 양봉사와 관리동, 분석실을 갖춘 386㎡ 규모다.

영광 낙월도는 봉군(벌 무리)이 없고, 꿀을 모으는데 필요한 밀원식물이 풍부해 꿀벌 품종의 유지·관리에 제격이다.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신품종 여왕벌 켈리킹을 받아 교배와 증식 후 양봉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켈리킹은 재래종 꿀벌 대비 로얄젤리 함량(10-HDA)이 31.3% 높다.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은 전국적으로 영광 낙월도 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 삼시도, 경남 통영 사랑도, 전북 군산 연도, 진도 가사도 등 5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김 호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남도문화탐방’으로 매력 체험

완도 해양치유·자연자원 체험 통해 지역 이해도 높여



전라남도는 29일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80명을 초청해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전남의 매력을 체험토록 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전기관 임직원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

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치러졌다.

2007년부터 시작된 남도문화탐방은 지금까지 총 427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해 전남 곳곳의 숨은 명소를 둘러봤다.

이번 탐방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심신 치유와

“오월은 어린이달” 광주시교육청, 어린이 체험 행사 풍성

광주유아교육진흥원·ACC문화창조원서 마술공연 등 선포

광주시교육청이 제 103회 어린이날 앞두고 다양한 어린이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29일에는 광주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80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 쑉!', 상상 쑉! 꿈이 있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샌드아트·레이저·마술공연, 가족 캐리커처 그리기, 가족사진 촬영, 카다리 아저씨 풍선아트 등을 체험했다.

또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꿈이누리놀이터 ▲아이(세)놀이터 ▲모래놀이터 ▲생각놀이터 ▲블록놀이터 ▲신체운동마루 ▲무지개마루 ▲호기심마루 ▲우주마루 ▲신나는마루 ▲상상마루 ▲음악마루 등 12개 체험영역을 경험했다.

5월 29일에는 ACC문화창조원에서 'ACC 미래운동회'를 진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가족 450여 명이 참여해 디지털아트(예술+신체놀이(스포츠)+놀이(게임) 융복합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땅파먹

기 ▲굴러라 모여라 ▲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불나방 대소동 ▲다함께 춤을 추다가 ▲스포츠 타임 머신 ▲그림자 추구 ▲파르릉 전화 받으세요 등이다.

각급 학교에서도 가족과 직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농성초 병설유치원은 5월 2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유초 연계 이음활동을 진행한다.

광주효동초도 같은 날 학생회에서 제안한 '재학생 희망메뉴' 라면과 후식 '요아정'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학년별 체육대회, 간식·선물 증정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광주시는 30일 오후 4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지역 모범중개사사무소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 임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대응TF팀과 토지정보과가 협업해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중개인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모범중개사사무소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 분석 ▲전세 계약 때유의 사항과 실무 체크리스트 ▲지자체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육자료를 제공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중개사사무소가 지역사회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전문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